

맹견 6종→8종 확대...사람 문 개 '안락사' 명령 논란일 듯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반려견 목줄 2m 이내...물림 사망사고 유발뎀 최고3년 징역
사람 물면 무조건 '관리대상犬'...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개파라치' 시행...포상금 1년 20번 이내로 제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공격한 개는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된다. 단 안락사를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반려인과 동물단체 측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등록된 맹견 수는 2만여 마리로, 전체 개(662만 마리)의 0.3% 수준이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테리어, 스테퍼드 블루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공격성이 큰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캥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

리칸 스테퍼드 테리어, 스테퍼드 블루테리어 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독'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cm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된다.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된다.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공공장소에서 2m 이내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아파트 복도 등 협소한 장소의 경우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유자가 안거나 목줄 길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특수학

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수입은 훈련을 이수한 맹견에 한해 허용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대상견의 목줄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상해·사망사고 발생뎀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근거도 됐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맹견의 유형·판단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책국장은 "비로 안락사(조치)로 가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라도 (공격성 개선이) 안 되면 안락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한다.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이울러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라며 "반려견이(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반려견 3대 트렌드는?...펫러닝·펫서리·펫부심

펫도가족 펫팸족 서 '나=펫' 펫미족 까지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애견인들은 '3펫'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펫이란 펫러닝, 펫서리, 펫부심을 말한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반려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소비 트렌드'라는 제목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동호회 및 커뮤니티를 통해 생산된 반려견 관련 414만 여건의 소셜 데이터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다.

이노션은 분석 결과 1000만에 달하는 애견인들이 반려견을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 형태의 펫러닝, 고급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펫서리(펫과 럭셔리의 합성어),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펫부심 트렌드를 더욱 선호한다고 밝혔다.

펫러닝의 경우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벤티켓(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신의 반려견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반려견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근된 연관은 동물보호법(2만 2000건), 훈련(7122건), 교육(4187건), 안전(1549건) 등이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펫서리는 펫산업 전반에 걸친 고급화·전문화 경향을 의미한다. 반려견에 대한 애정표현과 동시에 애견인 자신의 대리만족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급 펫상품 편집숍이 인기를 끌고 있고, 애완전에 친화적인 '펫프렌들리' 호텔 및 레스토랑과

반려동물이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또 사람이 먹는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휴먼 그레이드' 펫푸드도 등장하고 있다.

펫서리 관련 키워드는 카페(9만 6735건), 미용(8만998건), 호텔(6만 5354건), 수제간식(4만9655건) 등이 있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펫부심이다. 반려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동시에 자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소셜 데이터 중 인스타그램 버즈가 2013년 6.25에서 지난해 96.1%로 급증할 만큼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통해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트렌드가 포착됐다.

이수진 디지털 커맨드 센터장은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지난해 2조 9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펫노믹스(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성장세는 상품과 서비스 영역 전반에서 나타난다"며 "3펫 트렌드가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는 기존의 '펫팸(펫과 가족의 합성어)'족을 뛰어넘어 반려견을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펫미(펫과 나)족'의 등장까지 견인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